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1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8년 4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연구원]

청소년의 꿈*

Youth-led Research : Dreams of Youth



Purpose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지난 2017년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 연구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이슈포커스에서는 2017 굿네이버스 아동청소년 연구원이 수행한 '청소년의 꿈'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며, 권리의 주체자인 아동의 시각에서 '꿈을 생각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Key message |

굿네이버스 아동·청소년연구원 활동은 아동이 주도적으로 아동권리 이슈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지난 2017년에는 '청소년의 꿈'을 주제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학업성적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이 원하는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폭 넓은 분야에 대해서 체험중심의 경험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이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교육시스템 및 정책의 변화, 학교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활성화, 가정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1호의 내용은 2017년 아동·청소년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 2017 아동·청소년 연구원: 김인서 김지원, 안세진, 선예진, 임정연, 정혜령 (15~16세)

*** 본 자료에서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하는 연령기준으로 18세미만의 연령을 포괄하고 있으나,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연령 고려 및 아동·청소년 연구원이 사용한 표기법에 따라 '청소년'으로 일괄 표기하고자 한다.

Situation | 청소년, 꿈을 정하는 시기

꿈을 정하는 일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이지만, 친구들에게 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면 대부분은 꿈이 없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학교공부와 학원숙제로 인해 꿈을 생각할 시간 부족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청소년 시기에 ‘꿈을 생각할 권리’는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정작 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탐색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탐색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8월 서울시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꿈에 대하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을 탐색하고 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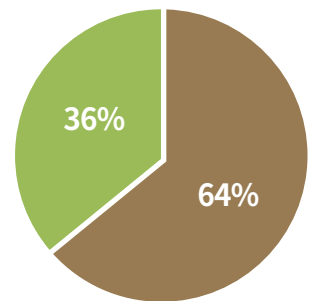
Children's rights issues | 우리는 꿈꾸고 있나요?

1) 나의 꿈의 주인공은 ‘나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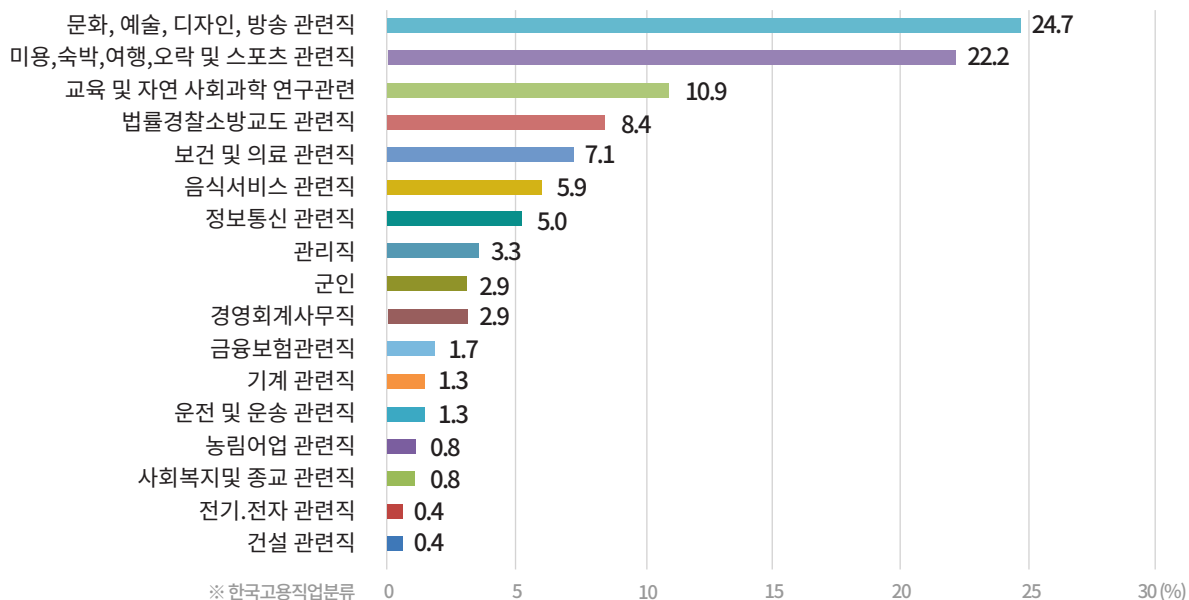
청소년은 꿈을 꾸고 있을까? 꿈이 있다는 청소년은 233명(64%), 꿈이 없다는 청소년이 130명(36%)으로 꿈이 있다는 청소년이 더 많았으며, 이 중 61%의 청소년은 꿈을 바꾸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꿈이 있나요?

- 꿈이 있는 아동
- 꿈이 없는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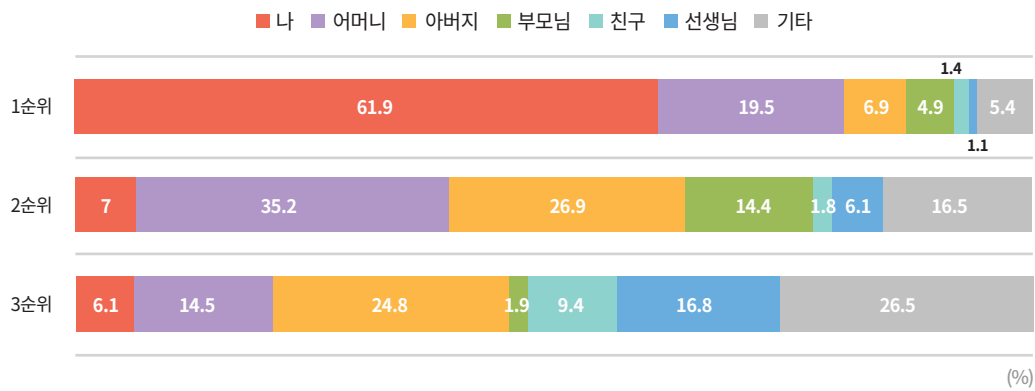


[표 2] 청소년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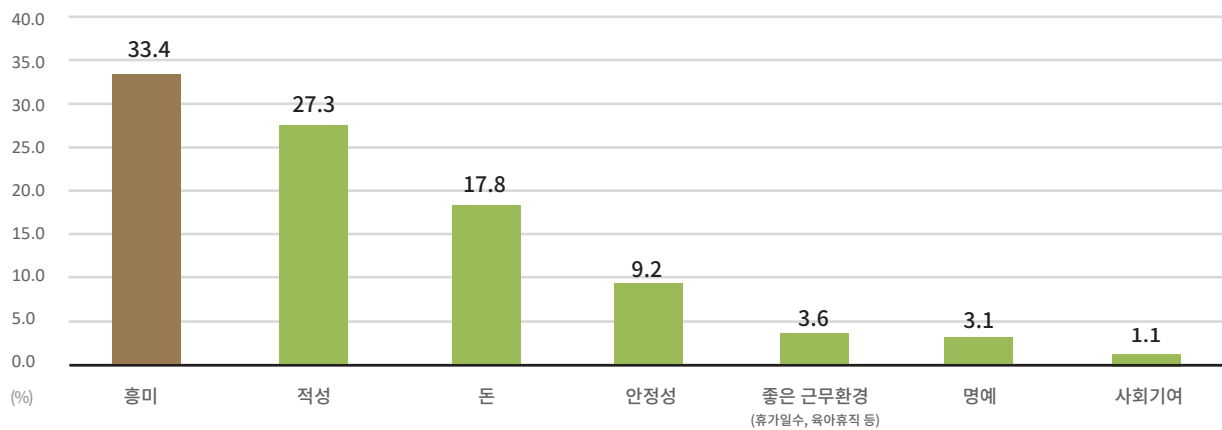
그렇다면 청소년이 현재 가진 꿈은 무엇일까? 꿈이 있다고 응답한 233명의 청소년의 꿈은 총 164종류로 다양한 직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꿈을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을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고,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전기 전자 관련직, 건설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등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 나의 꿈에 영향을 주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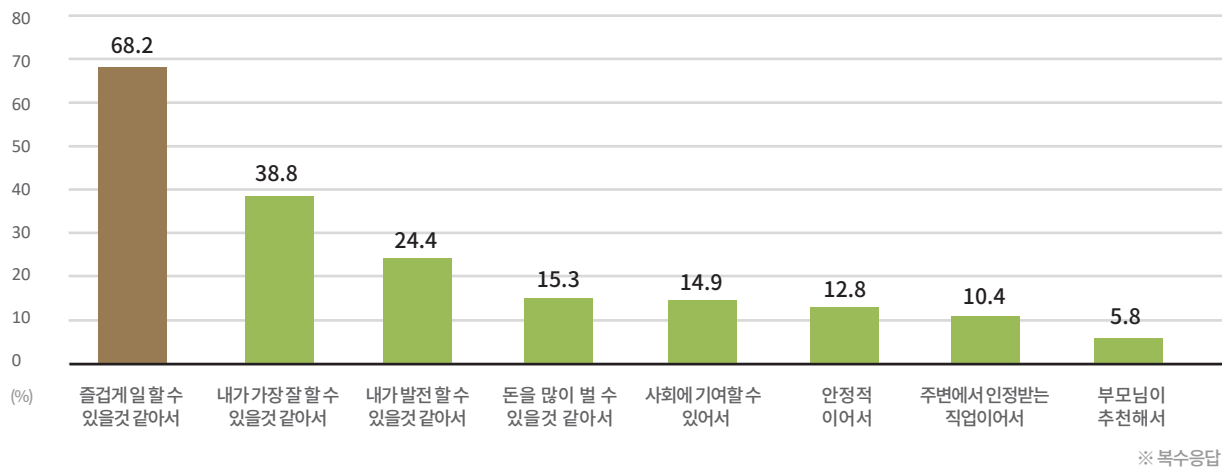
자신의 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 1위는 61.9%로 ‘나’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19.5%), ‘아버지’(6.9%) 순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꿈을 정할 때 나, 어머니, 아버지 혹은 형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친구처럼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꿈 선택의 중요한 기준



미래의 꿈(장래희망)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흥미’(33.4%), ‘적성’(27.3%), ‘돈’(17.8%), ‘안정성’(9.2%), ‘좋은근무환경’(3.6%), ‘명예’(3.1%), ‘사회기여’(1.1%)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결정을 위해 흥미와 적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돈과 안정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꿈을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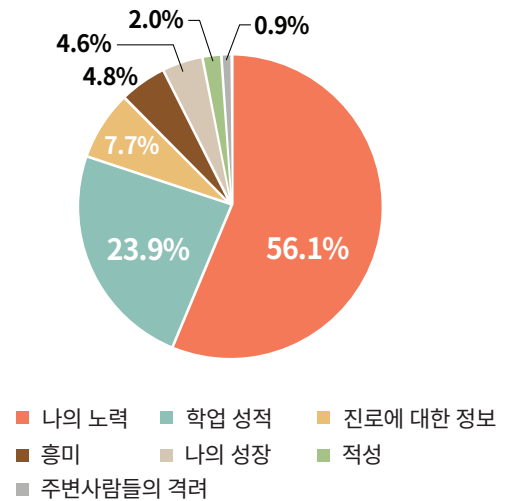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선택한 이유로 ‘즐겁게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68.2%)라고 하였고 그 다음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38.8%) 라고 답하였다. 반대로 ‘부모님이 추천해서’, ‘주변에서 인정받는 직업이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것은 각각 5.8%, 10.4%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이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꿈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 ‘공부’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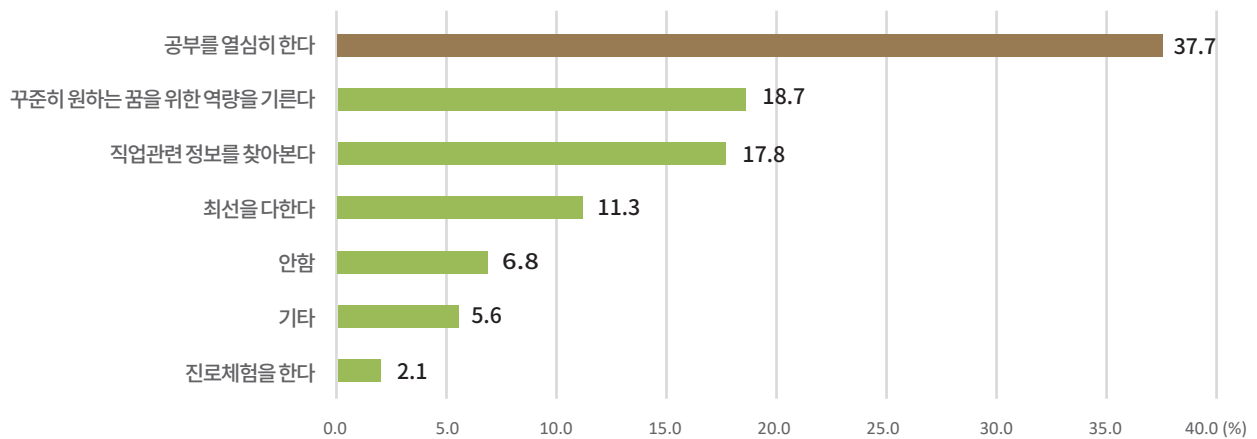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진 꿈에 대해 알고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의 노력’(56.1%)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 성적’(23.9%), ‘진로에 대한 정보’(7.7%)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37.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꾸준히 원하는 꿈을 위한 역량을 기른다’(18.7%), ‘직업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17.8%), ‘최선을 다한다’(11.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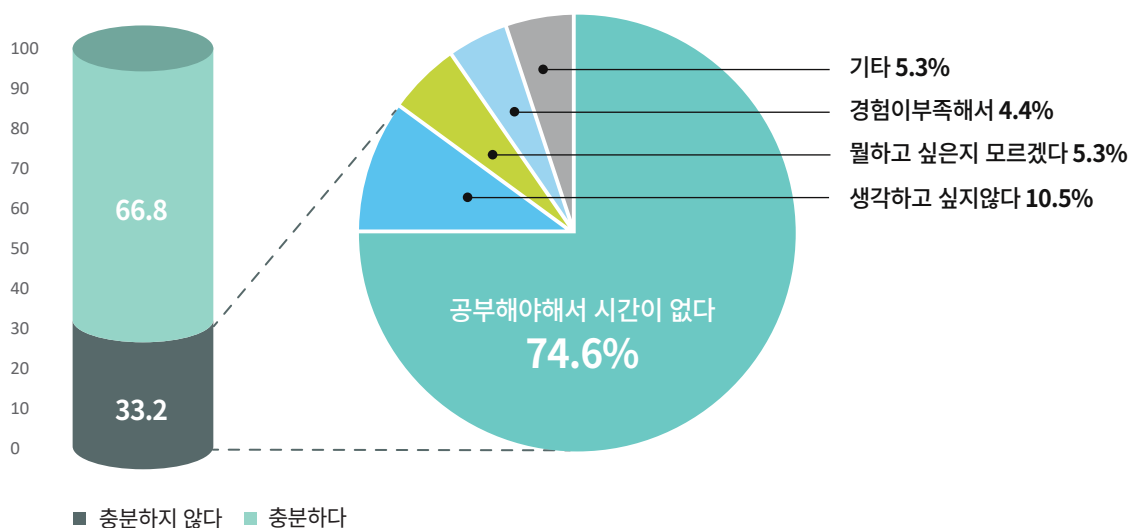


[표 7]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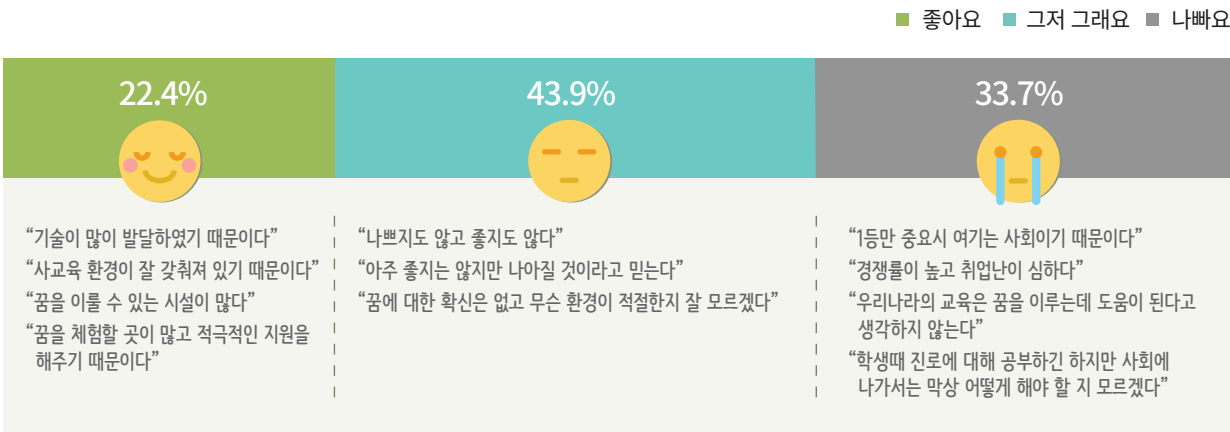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꿈을 생각할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하다’는 대답이 66.8%,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3.2%로 나타났다. 추가질문으로 꿈을 생각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매우)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 74.6%의 청소년들이 ‘학교, 학원 공부로 인해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답하였다. 학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거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꿈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8] 꿈을 생각할 시간



또한 우리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나쁘다’라는 의견이 33.7%로 뒤따랐고 ‘좋다’는 의견이 22.4%로 나타났다. 꿈을 위한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한 경우는 그 이유로 경쟁이 심한 교육시스템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1등만 중요시 여기시는 사회’, ‘경쟁률이 높고 취업난이 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꿈을 위한 환경이 좋다고 생각한 경우는 그 이유로 ‘IT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진로체험시설이 갖추어져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9] 꿈을 위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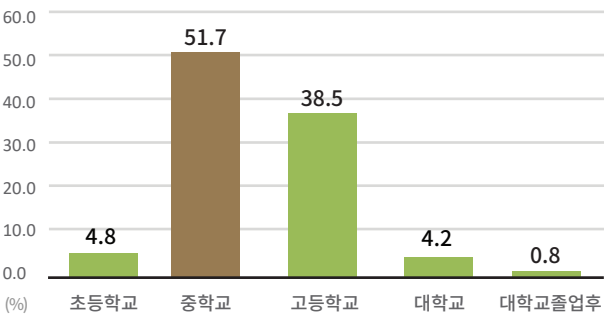


2) 꿈을 체험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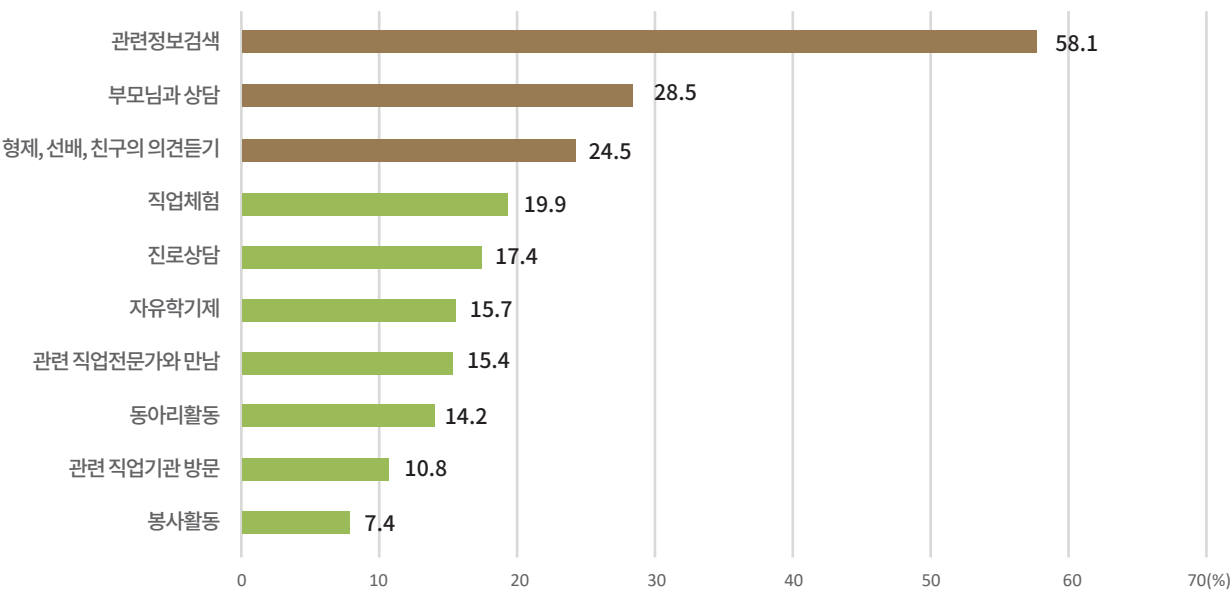
진로를 탐색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한 물음에 ‘중학교’라는 응답수가 51.7%로 가장 많았고, 뒤따라 ‘고등학교’라는 응답수가 38.5%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4.8%, ‘대학교’ 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후’는 0.8%로 가장 낮은 응답을 얻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이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가 진로 탐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진로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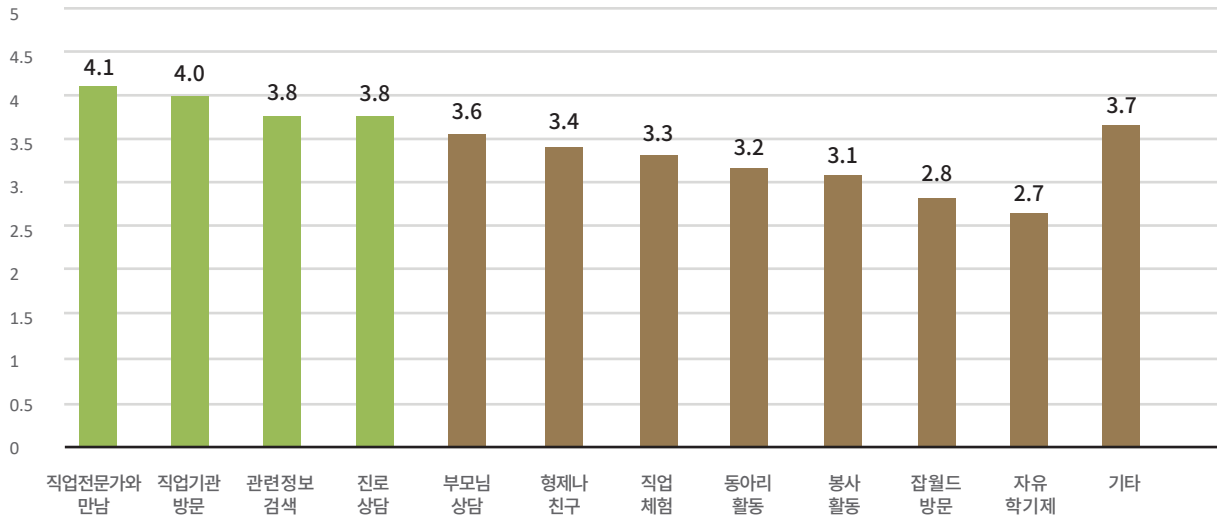
[표 11] 진로탐색경험



꿈을 탐색하기 위한 활동으로 ‘관련정보 검색’(58.1%)이나 ‘부모님과 상담’(28.5%)과 같이 간접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월등히 많았다. 반면 ‘직업체험’(19.9%)과 ‘직업전문가와 만남’(15.4%), ‘직업기관방문’(10.8%)과 같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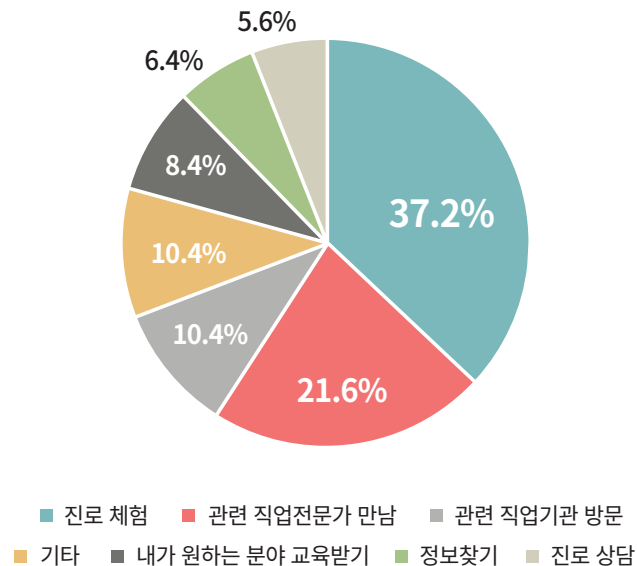
진로 탐색 활동이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물었을 때 ‘직업전문가와와의 만남’(4.09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기관 방문’(4점)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유학기제’(2.65점)는 도움이 되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문가를 만남으로써 그 직업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전문가 만남’과 ‘직업기관 방문’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진로 탐색 활동 도움 수준(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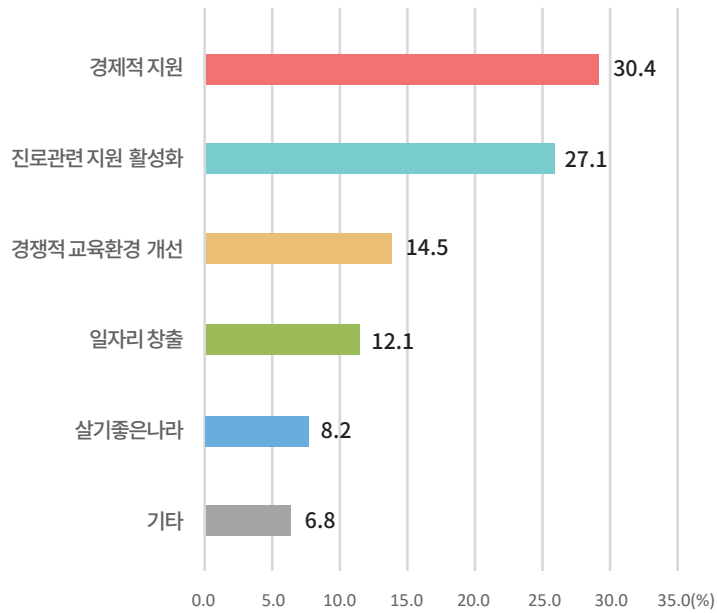
청소년이 진로탐색을 위해 가장하고 싶은 활동은 진로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유학기제와 같은 진로체험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로체험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온 것을 보인 것은 기존의 진로체험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진로체험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진로탐색을 위해하고 싶은 활동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30.4%)과 ‘진로 관련 정책지원 활성화’(27.1%)와 같은 물질적 지원 및 정책변화를 바랐고, 학교에게는 ‘진로교육, 상담, 체험 활성화’(68.2%)와 ‘교육환경개선’(13.8%)과 같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를 원했다. 반면 부모님에게는 꿈에 대한 응원과 믿음과 같은 ‘정서적 지지’(69.8%)를 가장 많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국가에 바라는 지원



“장학금을 지원해주세요”
 “대학교 등록금을 줄여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진로체험을 확대해 주세요”
 “진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자유학기제를 개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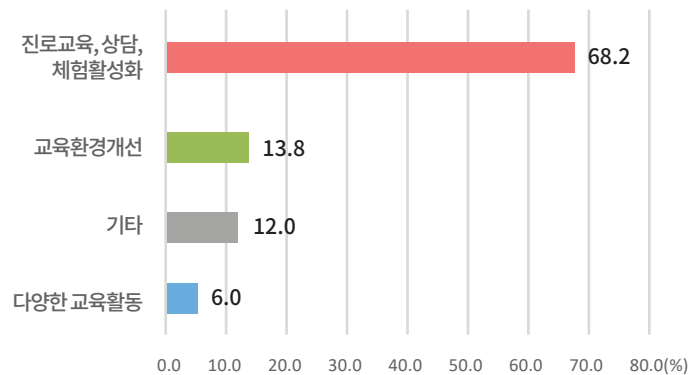
“사교육을 줄여주세요”
 “교육방침을 재정비해주세요”
 “입시부담을 줄여주세요”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새로운 직업을 늘려주세요”

“직업별 차별을 없애주세요”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세요”
 “더 좋은환경 만들어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표 15] 학교에 바라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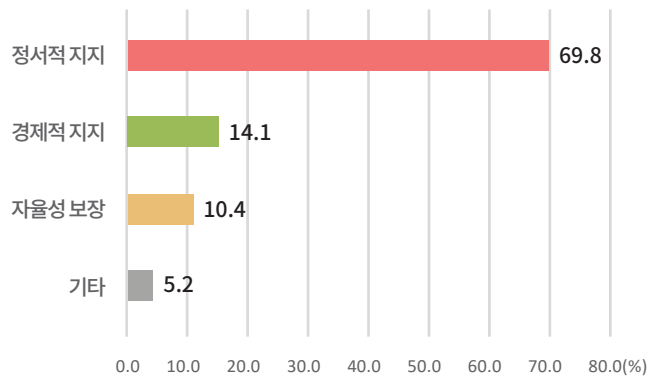
“진로체험을 확대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많은 직업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공부에 관한 압박을 줄여주세요”
 “너무 공부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방학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개설해주세요”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해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세요”

[표 16] 부모님에게 바라는 지원



“나를 믿고 지지해 주세요”
 “꿈을 응원해 주세요”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해요”

“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프로그램용 책 사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걸 하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해요”
 “그대로 해주세요”

Recommendations |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연구는 청소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꿈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해요

먼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학업성취 중심의 교육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목소리이므로 이를 잘 경청하여 정책을 바꾸거나 이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청소년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적성이 있는데, 공부만 중요시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교육제도 및 진로교육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진로체험의 기회를 늘려주세요

다음으로,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 관심 분야와 직업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폭 넓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 체험 실시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진로교육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미래로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모두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특정 전문가들의 포럼이나 회의에 참여하고, 담당 기업을 방문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선택과 직업의 구체화를 중요시하게 된다. 특히 직업계 고교생들은 ‘미래로의 여정’ 프로그램에서 첫 인턴십 시작 전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마련해준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이외에도 직업진로 정보센터, 진로정보 대학공동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정보센터 네트워크 등 많은 진로 전문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

이는 진로탐색이 단기적인 과정이 아닌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중대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체험들과 1년으로 제한되는 기간 동안 하는 자유학기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 또한,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청소년이 꿈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를 믿고 응원해주세요.

청소년들도 먼 미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더디더라도 가정에서의 기다려 주고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부모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를 지켜보고 바라봐 주는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응원 하고 믿어 준다면 큰 지지가 되고 자원이 될 수 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흘러들거나 무시하지 않고 조언과 격려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탐색하고 진로를 정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과정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이유나 그에 따른 해결책을 생각해보며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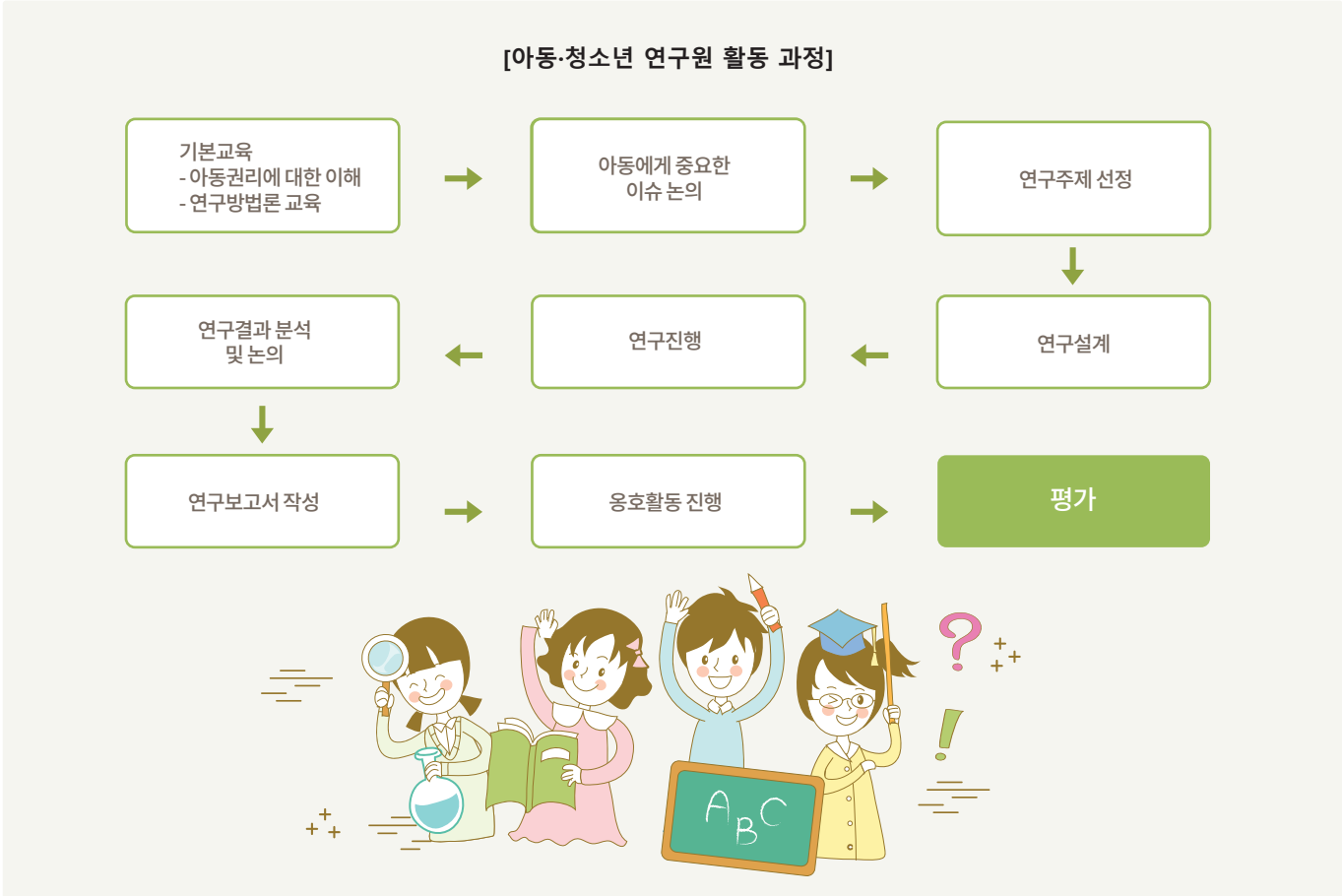
* 최지선 (2017) 프랑스의 중등학교 진로교육 동향과 시사점. 교육정책포럼 2017년 통권 289호. 한국교육개발원

Case Story | 굿네이버스 아동·청소년 연구원활동이란?

아동·청소년연구원 활동은 아동이 연구자로서 성인 연구자들과 동등한 위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아동을 연구대상(Object) 혹은 연구 참여자로 여기던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권리의 주체자인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탐구하고, 지식을 창출하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탐색하는 등 아동주도의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상황과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McIntyre, 2000; 남태봉, 2013 인용).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수행의 주체인 아동·청소년 연구원은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이해 및 역량을 갖추기 위해 아동권리 및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권리 이슈를 찾아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활동 참여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개선을 위한 논리적 사고과정 및 해결방법 모색을 할 수 있게 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참고문헌 |

남태봉, & Nam, C. B. (2013).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2), 31.

McIntyre, A. (2000). Inner city kids: Adolescents confront life and violence in an urban community. NYU Press.